

# 역사를 환원하여 진상을 명백히 보다

## - 4·25 평화 청원(상방) 사건 회고



23년 전인 1999년 4월 25일 만여명 파룬궁 수련생이 국무원 신방국에, 4월 23일 텐진 사건에서 불법으로 연행된 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청원을 갔다. 이번 청원은 중국에 충격을 줬으며 또 국제에서 주목하는 초점으로 됐고, 국제여론은 '중국 청원사상 가장 이직적이고 평화적인 청원'이라고 평가했다.

당일 국무원 총리의 관심으로 텐진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연행한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됐고 수련생들이 조용히 떠나갔다. 그러나 장쩌민은 이번의 평화적인 청원을 '중남해 포위공격'으로 왜곡했다. 아울러 1999년 7월 20일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이고 난폭한 박해를 발동했다.

### 사건의 발단: 4월 23일 텐진 사건

1999년 4월 11일 중국 정법위 전 서기 튀간의 동서인 허쥬슈(何祚麻)가 텐진교육원의 '청소년 과학기술 박람회' 잡지에 사실을 날조하는 비열한 수단으로 파룬궁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독한 공격 기사를 발표했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부 텐진 파룬궁 수련생이 텐진교육원과 관련 기관에 실정을 반영하고 허쥬슈의 글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23일과 24일 텐진시공안국은 진압경찰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붙잡았다. 그 과정에 수련생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었으며 결과 40여명이 연행됐다.

### 베이징에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알림을 받다

텐진시정부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공안부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으므로 베이징에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 소식이 신속히 전해지자 수련으로 절실한 수혜를 입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관련 부서에 실제정황을 반영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텐진시정부의 '안내'에 따라 베이징 중앙정부에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사회에 이롭다는 사실 진상을 진술하고, 동시에 '4·23' 텐진 사건에서 불법으로 연행된 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러 갔다.



시카고, 런던, 토론토의 파룬궁 수련생이 4·25 평화 청원 23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의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 중남해를 포위공격했다는 거짓말을 폭로하다



사진속 화살표: 중남해 홍색 담벼락

당시의 CCTV 뉴스 화면과 현장 사진에서 청원 민중의 뒷면이 중남해 특유의 홍색 담벼락이 아님을 보아낼 수 있다. 청원 민중과 길을 사이 두고 바라보이는 곳이 중남해 홍색 담벼락이다. 아울러 중남해 홍색 담벼락으로 집결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CCTV 에서 방송된 현장 녹화 영상에서도 시위에서 늘 볼 수 있는 정서가 격앙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어가 없고 구호도 없었다. 매우 뚜렷한 것은 청원간 민중은 중남해를 '포위' 하지 않았고 소위 '공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중공 당국에서 주장하는 소위 '중남해 포위공격'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졌다.

## '4·25' 사건 도발자 업보를 받아 사망하다

2007년 6월 5일 당시 텐진 공안국 국장, 정법위원회 서기, '610' 두목 쑹핑순(宋平)이 사무실에서 탄환을 맞고 자살했다. 2008년 1월 10일 당시 텐진시 시위서기 장리창(蔣立昌)이 사망했다.

장씨와 쑹씨 2인은 결탁하여 적극적으로 장쩌민 강패집단을 따라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다. 1999년 4월, 2인은 텐진사건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연행하는 직접 지휘에 나섰고 '4·25' 사건을 도발했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세뇌하고 노동교양 처분을 내리는 등 각종 박해를 실시했다. 장리창은 또 파룬궁을 모함하는 글을 직접 썼다.

##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 고위관리 기소당하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장쩌민, 뤼간, 저우융캉 등 중공 고위관리 50여명이 파룬궁을 박해하여 세계 4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반인류죄'와 '집단학살죄'로 법원에 기소됐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20만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국최고검찰원과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쩌민고소 큰 물결로 아시아에서 백만명이 넘는 민중이 연대서명(장쩌민죄행 고발)으로 성원했다.

## 파룬따파 홍전세계

파룬따파는 파룬궁으로도 불리며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1992년 5월에 전하신 불가상승 수련대법으로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지도로 하며 다섯가지 느슨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공법을 연마한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할 수 있다. 1998년 베이징, 우한, 다롄, 광둥성 의학적 전문가가 5차례 의학조사에서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유효율이 9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홍전됐고 세계 각국의 표창장과 지지하는 의안과 서신 등을 5400여 건 받았다. 주요저작인 《전법륜(法)》은 40여종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 지역에서 발간됐으며 파룬따파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falundafa.org 인터넷 봉쇄돌파로 접속가능)

